

2020년 3월 29일 “흩어짐 속에 성소가 되신 주”(겔 11:14-21)

<도입>

신앙생활에 모임(예배, 목장, 친교 등)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요즘 바이러스 전염으로 인한 지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강조하는데 모임의 의미와 반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거부감 있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모이기에 힘쓰라 하고, 구약~신약에 이르기까지 모여서 예배를 통해 약속된 축복을 생각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성경과 교회 역사속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불가피하게 흩어져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14c~18c 에 창궐했던 흑사병 때문에 몇 천만 명이 죽었을 때, 교회도 모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에스겔 본문은 질병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백성들이 바벨론(과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흩어짐, dispersion 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의 변형된 말로서 distancing 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이런 가운데서도 품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 흩어져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허용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오래 지키지 못한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만 망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질 것을 감수하셨습니다.

고대 종교 사회에서는 어떤 신의 백성이 망하면 그들 신도 열등한 신으로 격하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닥친 나쁜 현실과 더불어 주님에 대한 비관과 좌절 또한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오해와 무시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품으신 일을 행하십니다. 본문은 세가지를 말해줍니다.

첫번째, 백성이 거할 수 있는 성소가 되어 주십니다(16 절).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두번째, 스스로 제거할 수 없었던 우상, 가증한 것들(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해치는 것들)을 제거하십니다(18 절).

세번째,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율법을 따르는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19 절).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흩어진 백성들을 위한 계획과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2] social distancing 가운데

이 지침을 지키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1) 공중 건강을 통해 세상을 창조의 질서대로 복원시키는 것은 창조 때 부여 받은 사람의 직분(소명)입니다. 창조 세계는 원래 자정 능력이 있지만 전염병으로 생명을 빼앗길 정도로 세상이 오염된다는 말은 창조의 속성이 깨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침은 창조의 소명을 지키는 일입니다(빌 게이츠의 성찰 참고).

(2) 사회적 거리두기와 성경에서 강조하는 모임은 서로 배척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흩어지는 일은 때에 따라 허용되었고 이것을 통해 주님의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흩어짐을 허용하실 때 본문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번째(16 절), 성소가 되어 주심을 각자의 자리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의 성소 되심은 기도와 목상이 깊어질 때 발견됩니다. 이것은 지금 가능합니다.

두번째(18 절), 우상과 가증한 것은 탐욕과 집착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난속에서 처리하기가 용이합니다.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에 의탁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19 절), 어려움이 커지면 두려움/불안과 함께 부정적이고 비관적 생각, 허황된 소원이 앞서기 쉽습니다. 이런 중에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한 마음과 새 영을 주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율례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임한 성령과 우리 심령이 연합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주님의 역사는 현재 상황과 무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환자의 급증, 의료기구 부족, 마비되는 경제 속에서 한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 이라니요. 우리는 성령이 존재하심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 우리를 살리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소망의 역사는 무의미해 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허황되게 들리지 않고, 소망과 미래가 보일 듯 하게 느껴진다면 영적 감각이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할 수록 social distancing 을 통해 더욱 정확되고, 나와 사회의 새 삶과 새 질서를 향한 출발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렘 29:11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어려울수록 정확됩니다. 성도는 자신을 참된 길로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웃 또한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지켜줍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품게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나라는 social distancing 속에서부터 이미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부요함이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질문> (아래의 질문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질문과 함께 토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구약의 백성들이 죄와 과오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 징계받은 것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2. 오늘 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social distancing 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 보건의 측면에서, 영적 측면에서 생각해 보십시오.